



## 조이시티 (067000)

### 창세기전 성과를 통한 적자 폭 개선 전망

#### ◎ 창세기전: 안타리아의 전쟁 25일 출시 이후 안정적 순위 유지

- 카카오게임즈와 공동퍼블리싱하는 창세기전이 출시 이후 최고순위(Google Play기준) 6위를 기록
- 최근에는 안정화 추세를 보여주면서 15위 내외의 순위를 유지 중
- 이는 초기 1주일 평균매출이 2억원 수준까지 올랐다 현재 6천만원 수준의 일평균 매출로 안정화 된 것을 의미
- 공동퍼블리싱으로 수익 분배율이 낮을 수 있으나 카카오게임즈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
- 매출 인식은 매출 100에서 수수료 30%와 카카오퍼블리싱 분배율(37~42%)을 제외한 금액을 총매출로 인식, 이 중 개발사인 엔드림에 수수료비용이 나가는 구조. 즉, 전체 100에서 5%~15%수준이 영업이익으로 인식
- 마케팅은 카카오게임즈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큰 비용의 확대 없이 창세기전:안타리아의 성과가 확대될수록 영업이익이 정률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

#### ◎ 적자 폭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

- 최근 신작 출시가 없는 가운데 기존 게임들의 매출이 하향추세에 있어 점차 적자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했음
- 창세기전:안타리아의 국내성고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4Q적자 폭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

#### ◎ 향후 신작 출시에 따른 성과확대 기대

- 창세기전 국내 성과를 밑바탕으로 신규게임에 대한 기대치 확대 전망
- 창세기전:안타리아의 해외 판권은 조이시티가 단독으로 보유, 안정된 게임성을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수익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
- 이외에도 토탈워페어(전략)와 블레스모바일(MMORPG), 사무라이 쇼다운M(MMORPG)까지 신작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

####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1월 6일 현재 '조이시티'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